
울기엔 좀 애매한

작성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이성균(시흥 함현고등학교 교사)
성지현(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교사)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 만화가열전 1
최규석 만화

■ 주 제 어 #만화 #입시미술 #꿈 #고3 #성장 #위로

■ 분 류 만화 > 논픽션/휴먼만화

■ 선정 내역 ★한국출판문화상 아동청소년 부문 수상작 ★2011 부천국제문화대상 대상 수상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선정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도서 소개

‘원빈’이라는 본명 덕분에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부끄러운 평범한 고등학생. 그림 그리기에 남다른 재능이 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엄마에게 미술학원 가고 싶다는 말을 못 한다. 그런 원빈의 마음을 아는 엄마는 고민 끝에 입시 미술학원 만화 반에 보내 준다. 부푼 마음을 안고 첫 수업을 가 보니 그곳에는 각자 나름의 사연을 안고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다. 좋은 실력으로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재수를 하는 은수, 가정이 부유하지만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아 고민하는 지현, 엄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은지까지.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서슴 없이 독설을 퍼붓지만 사실은 힘든 삶을 살아내는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미술 강사 태섭이 있다. 그는 자학 개그와 위악 독설로 학생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따끔하게 충고하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쓸쓸함을 감추지 못하기도 하면서. 그런 그들에게 시련이 닥친다. 부유한 지현의 부모가 미술학원장을 만난 뒤, 지현이가 명문대학교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것이다. 미술학원장이 아이들의 수시 지원을 극구 말리면서, 아이들의 그림을 모아 지현이의 포트폴리오로 만든 사실이 밝혀진다. 울분을 토하는 아이들에게 원빈은 말한다.

“돈도 재능이야. 머리 좋으면 놀아도, 공부 잘하고 재능 있으면 그림도 금방 잘 그리고, 예쁘면 더 살기 편하고……”

한바탕 소동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어차피 세상은 그런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정시를 준비한다. 원빈은 원하던 명문대학교에 합격한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다. 등록 날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만 턱도 없다. 뽀족한 수 없이 태섭의 송별회 모임에 찾아간 원빈에게 태섭은 묻는다.

“어떻게 됐어?”

원빈은 씨익 웃는다. 웃다가 웃다가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며 작품은 끝이 난다. 송별회 모임에 가던 길에 원빈이 마주친 미술학원장이 새 차를 뽑았다며 자랑하던 모습과 겹쳐지면서 안타까움은 배가 되지만, 그 누구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세상은 그런 거’라며…….

학습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점을 쟁점화 시킬 수 있습니다. 쟁점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다’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울기엔 좀 애매한’ 상황 표현하기	1차시
독서	등장인물 소개하기	2차시
	‘나’를 둘러싼 문제 상황은?	3차시
	「chapter 3」 내용 정리, 문제 인식 및 분석	4차시
	「chapter 4」 읽고 활동하기	5차시
독서 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논제 정하기	6차시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토의·토론 하기	7~8차시
	등장인물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9차시
	등장인물에게 댓글 달기: 영화 <스물>의 모티브	10차시

1차시

‘울기엔 좀 애매한’ 상황 표현하기

1. 다음 카드에 다양한 얼굴 표정을 그리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써 봅시다.

2.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보고, 짝공과 마주 앉아 그때의 자신의 감정을 표정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짝공의 표정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맞춰 봅시다.






▶ 밤 10시쯤 라면을 끓이신 아버지께 라면 한 젓가락만 달라고 부탁할 때
▶
▶
▶
▶

3. 여러분은 '울기엔 좀 애매한' 상황을 겪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울기엔 좀 애매했던 상황을 짝공에게 말해 보고, 그 상황의 순간을 표정으로 드러내어 봅시다.

2차시

등장인물 소개하기

1.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 봅시다.(이름, 나이, 성격, 가정 환경 등)

선생님께 등장인물의 나이, 직업, 성격, 가정 환경 등 작품을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3차시

'나'를 둘러싼 문제 상황은?

1. '원빈'을 둘러싼 개인적·사회적 문제 상황과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 문제		사회적 문제
원빈	원빈	원빈
해결 방안		해결 방안

2. 현재 자신의 개인적·사회적 문제 상황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점을 적어 봅시다.

개인적 문제		사회적 문제
원빈	나	원빈
해결 방안		해결 방안

1. 「chapter 3」의 내용을 두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시다.

1) 빈칸을 채워 봅시다.

'원빈' 이야기	'은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 원빈의 편의를 봐주는 주인 (최저 임금, 식사, 시간 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사랑 미진과의 재회 - 미진이 학원 강사 로 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점이 이전해야 할 상황 - 집 싸기를 부탁하는 주인 - 새벽에 나와 집을 싸는 원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생이 찾아와 어려운 가정 형편 을 상기시킨다. - 엄마가 은수의 돈을 쓴 이유와 취업을 하겠다는 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하는 서점의 상황 을 알게 된다. - 태섭이 한 달 전부터 서점의 이전계획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진을 외면하는 은수 - 학원과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미진을 외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속인 서점 사장을 찾아간 원빈. - 서점 주인에게 아르바이트 비를 가로채 도망치는 원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진과의 이별 - 삶에 지친 은수가 “피곤해”라는 말로 미진과 거리를 둔다.

2) 두 인물이 갈등을 겪는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찾아 발표해 봅시다.

선생님께 원빈과 은수를 중심으로 「chapter 3」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게 합니다. 두 인물이 처한 공통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원빈과 은수가 겪는 희망과 좌절이 무엇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장애물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살피게 합니다.

2. 인물의 대사에 나타난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친구와 함께 파악해서 말해 봅시다.

[72쪽] 원빈 “모, 몰랐네요! 좋은 나라였군요.”	
[82쪽] 은수 동생 “나한테 꿈이 없는 게 참 다행스럽달까…….”	
[95쪽] “그냥 너무…… 피곤해……”	

1. <모둠 활동> 제시한 본문 내용과 <보기>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교육 분야에서 문제를 찾아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태섭: 너희들은 이제 기계가 될 거다.

하루 열두 시간 넘게 햇빛도 안 들어오는 교실에서 시험 치고 평가하고 두 달을 반복하면, 우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우리한테 좋은 학벌이 필요해? 아니잖아. 대학에 안 가면 만화 못 그리나? 아니거든.

학생: 그러는 썬도 대학 갔잖아요.

태섭: 그러니까 말이야. 나처럼 똑똑한 사람도 대학에 가는 것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 다른 걸 볼 기회가 없었어. 대학에 가면 뭘 하지도 몰랐지만 대학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 그냥 겁만 줘. 무슨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자꾸 다음 단계로 넘기지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만 학자금 대출 채무가 남았지. (128~129쪽)

<보기>

어느 날 줄무늬애벌레는 인간힘을 쓰고 기어가는 다른 애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대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기둥이 하나 보였습니다.

줄무늬애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 기어가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기둥은 꿈틀거리며, 서로 밀치는 애벌레들의 더미라는 사실을 - 그것은 애벌레들로 이루어진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애벌레들은 그 꼭대기에 오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줄무늬애벌레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봄철에 솟아오르는 수액 모양으로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줄무늬애벌레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른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나도 지금 막 도착했는걸. 아무도 말해 줄 만한 시간이 없나 봐. 저 꼭대기에 오르려고 이렇게들 바빠야단들이니 말이야.”

하고 그는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줄무늬애벌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렇지만 모두들 그곳으로서 둘러 가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매우 훌륭한 것이 있을 거야. 안녕! 나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 하고는 그도 그 더미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줄무늬애벌레는 새로운 충동으로 머리가 터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쉼 새 없이 다른 애벌레들이 그의 옆을 지나 그 기둥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출처: 『꽃들에게 희망을』(트리나 폴러스) 중에서

논의 주제	
문제의 원인 분석	
해결 방안 모색	

선생님께 교육 문제 중 하나의 주제를 잡아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의 구조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지도합니다. 지나치게 큰 주제보다는 작품에 나타났듯이 ‘맹목적인 대학 진학 풍조’, ‘학벌 중시’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2. 아래 <보기>는 가난과 관련된 한자성어와 속담입니다. 가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한 가지 관점을 반박하는 글을 써서 발표해 봅시다.

- ㉠ 빈자소인(貧者小人: 가난하면 못한 소인배가 된다.)
- ㉡ 빈이무원(貧而無怨: 가난하면서도 원망함이 없다.)
- ㉢ 가난이 싸움 불이다. ㉣ 가난은 모든 예능과 장사의 어머니다.(Poverty is the mother of all arts and trades.)
- ㉤ 가난이 죄다. ㉥ 가난도 스승이다.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가난에 대해 () 관점에 대한 나의 생각

1. <모둠 활동> 제시한 본문 내용과 <보기>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교육 분야에서 문제를 찾아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진행 방법]

<논제 도출을 위한 토의 1단계(20분)>

1. 모둠을 구성합니다.

2. 『울기엔 좀 애매한』을 읽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 살펴봅니다.

- 책을 읽으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점,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긴 부분, 해결해야 할 점, 우리 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각자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개수 제한 없음)

- 포스트잇을 붙이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왜 불편했는지, 왜 개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여 모둠원의 공감을 이끌어 냅니다. 또한 이 문제점이 개선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측해 봅니다.

<논제 도출을 위한 토의 2단계(20분)>

1. 모둠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다음 조건에 따라 대표 논제를 선정합니다.

- 중요성: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 시급성: 제시한 문제점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가?



2. 선택된 문제를 우리가 토의·토론하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논의합니다.

-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토론이 가능하도록 질문형으로 논제를 만들어 보세요.

예) 엄마의 병원비 때문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은지와 같은 학생에게 우리 사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진행 방법]

1. 모둠에서 퍼실리테이터(회의 진행자) 1명을 선정해 주세요.
2. 논제에 대해 역장 분석을 실시합니다.
3. 역장 분석에 따라 정책을 제안합니다.
4.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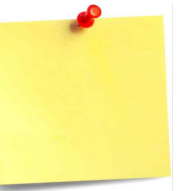
연번	과정	시간(분)	비고						
1	OPENING	2	10분						
2	GROUND RULE	5							
3	토론의 중요성 및 전체 프로세스 설명	3							
4	<p>1ROUND: 역장 분석(Force Field Analysis)</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디딤돌(도와주는 힘)</td> <td>걸림돌(방해하는 힘)</td> </tr> <tr> <td> </td> <td> </td> </tr> <tr> <td>BEST 3</td> <td>BEST 3</td> </tr> </table> <p>- 생각할 시간 주고 포스트잇에 디딤돌, 걸림돌 1개씩 적기 - 모둠원은 돌아가면서 포스트잇을 붙이며 발표하기 - 발표하면서 자신의 포스트잇 유목화 하기 - 퍼실리테이터: 모둠원의 동의를 얻어 가면서 메모하기 - 유목화하면서 자유토론 하기 - 자유토론 과정에서 BEST 3 선정하기 (BEST 3은 자유롭게 유목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멀티보팅을 통해 중요한 것을 2개씩 선정. 표시하게 하여 다수 획득한 항목을 선정할 수 있다.)</p>	디딤돌(도와주는 힘)	걸림돌(방해하는 힘)			BEST 3	BEST 3	40분	발표, 자유 토론 과정을 통해 유목화 하여 디딤돌(도와주는 힘), 걸림돌(방해하는 힘) BEST 3 선정
디딤돌(도와주는 힘)	걸림돌(방해하는 힘)								
BEST 3	BEST 3								
5	<p>2ROUND : 정책(방향) 제안하기</p> <p>1ROUND에서 도출된 ‘디딤돌 BEST 3’와 ‘걸림돌 BEST 3’을 해결하는 정책(방향) 제안 도출하기</p> <p>- 생각할 시간 주고, 포스트잇에 정책(방향) 제안 1개씩 적기 - 모둠원은 돌아가면서 포스트잇을 붙이며 발표하기 - 자유토론 과정에서 BEST 3 선정하기 (BEST 3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멀티보팅을 통해 토론자에게 중요한 것을 2개씩 선정 & #8231; 표시하게 하여 다수 획득한 항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p>	20분	역장분석을 통해 논의된 내용에 기반하여 토론을 통해, 정책(방향) 제안 BEST 3 선정						
5	결과물 발표하기	10							

9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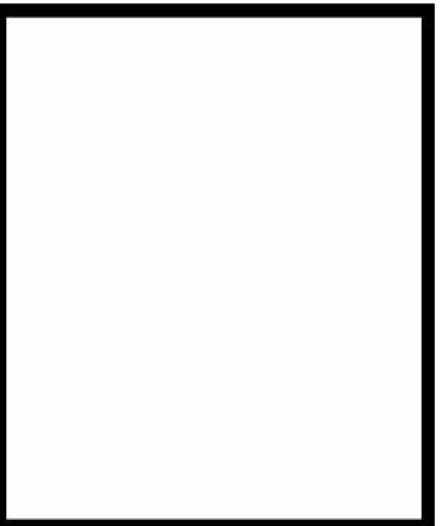



등장인물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1. 『울기엔 좀 애매한』의 등장인물의 심정이나 상황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각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공감지수를 매겨 아래 포스트잇에 등장인물의 이름을 적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등장인물 : 원빈, 은수, 지현, 태섭, 종화, 원장, 원빈 엄마, 원빈 아빠, 서점 사장

1	2	3	4	5	
← 공감도지 않음					공감됨 →
					

2. 『울기엔 좀 애매한』의 등장인물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장인물 두 명을 골라 공감, 조언, 비판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봅시다.






 새 메시지	이름		 새 메시지	이름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1. 영화 <스물>은 『울기엔 좀 애매한』을 모티프로 한 영화입니다. 다음의 영화 장면을 보고, 봉우의 대사에 댓글을 달아 봅시다.





오늘 수능 시험일이다. 가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대학에 만화를 전공하기 위해 재수를 하던 봉우(이준호)가 결국 수능을 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봉우는 경제(강하늘), 치호(김우빈), 소민(정소민), 소희(이유비)와 함께 중식집에서 술을 마셨다.

치호: (술을 벌컥 마시고 난 후) 이 미친 새끼야! 이럴 거면 일 년 동안 왜 고생을 했어?

봉우: 그만해! (벌떡 일어나서) 왜 뭐라고 하는데? 왜 포기하는 사람은 욕먹어야 하는데? 세상이 뭐, 김연아, 박태환 같은 애들만 있냐? 그렇게 되려다가 포기한 애들은 다 욕먹어야 하는 거야? 왜? 왜!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누가 대학 안 간대? 산업체로 갈 거야. 월급도 받아 가면서 일도 배우고.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울먹이며) 만화는... 만화는... 만화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며) 눈물이 안 난다. 이게 뭔가 울기엔 좀 애매해. 만화는 뭐 어떻게든 그리면 되지. 그렇잖아. 이게 뭐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input type="checkbox"/>	좋아요		
<input type="checkbox"/>	응원해요		
<input type="checkbox"/>	멋져요		
<input type="checkbox"/>	슬피요		
<input type="checkbox"/>	화나요		

2. 친구와 댓글을 바꾸어 읽어 보고, 그 밑에 다시 댓글을 달아 봅시다.

<input type="checkbox"/>	좋아요		
<input type="checkbox"/>	응원해요		
<input type="checkbox"/>	멋져요		
<input type="checkbox"/>	슬피요		
<input type="checkbox"/>	화나요	